

사회

# ‘오현섭 쓰나미’ 여수 일파만파

## ‘이순신광장’ 뇌물 8억 받아 정가 등 뿌려 ... 각종 사업 수사 확대

### 인사비리 의혹 시청 공무원 수사도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에서 촉발된 오현섭(60·구속) 전 여수시장의 비리 사건 여파가 여수시 정 전반기와 정치권에 걸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경관조명업체 외에도 이순신광장조성 사업 과정에서 주관 사업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여수지역 정가에 살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경찰청과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재직 당시 4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순신광장 조성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은 야간경관조명업체로부터 받은 2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 2007년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사업자로부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용처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오 전 시장이 8억원 중 일부를 지난 5월 여수시·도의원 20여명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20여명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이 돈을 지인 2명과 민주당 당직자 1명 등 3명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여수지역 안팎에선 오 전 시장의 돈이 지역 시·도의원은 물론, 중앙정치권에도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따라서 오 전 시장의 금품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수시와 여수지역 정가는 물론, 중앙정치인들에게까지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외에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131억원), 웅천생태터널사업(92억원),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84억원) 등 오 전 시장 재직시 진행된 각종 사업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구속했다.

또 경관조명사업 뇌물 사건에 연루된 오 전 시장의 측근 김모(여·59)씨와 주모(67)씨 등을 구속하는 한편, 주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서모(57) 의원 등 전 현직 시의원 10명을 입건했다.

# 업자 사무실서 여수시의원·공무원 도박

### 경찰, 4명 입건

여수경찰은 29일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돈 내기 화투를 친 여수시 의원 황모(67)씨와 여수시 공무원 윤모(51·5급)씨, 건축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밤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수시 화장동 모 건축사무소에서 1점에 500원씩 주고 받는 등 총 500만원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다. 친목 도

모 차원에서 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나주교육청 공무원 5명이 업무시간에 교육청 당직실에서 29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구속했다.

또 경관조명사업 뇌물 사건에 연루된 오 전 시장의 측근 김모(여·59)씨와 주모(67)씨 등을 구속하는 한편, 주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서모(57) 의원 등 전 현직 시의원 10명을 입건했다.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인파

지난 28일 오후 개막 이틀째를 맞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열린 광주시 서구 풍암동 생활체육공원 공연장을 찾은 500여명의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참가자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브루셀라 소 보상금 사기 방조 공무원 징역형

#### 축산농민 14명은 집유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도살 처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부풀린 축산농민들과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29일 돈을 받고 살처분할 소의 무게를 늘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김모(44)씨

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뇌물을 받은 3985만원을 추정하는 한편, 보상금 부풀리기에 가담한 축산농민 14명에게는 징역 5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축산농민들도 공사 사실이 인정되거나 자신의 잘못을 안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 국제결혼 사기 피해 50대 男 자살

지난 27일 오전 10시40분께 김모(52)씨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겨졌던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49)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은 경찰에서 “김씨의 집에서 심하게 법세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 사촌동생에게 연락한 뒤 함께 들어가 보니 숨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두 차례나 여성을 소개받지 못한 채 전 재산을 날린 뒤 충격으로 한 차례 자살시도를 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이 충격으로 지난해 9월께 자신의 어머니(82)가 숨지자 매일 힘들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대낮에 학교서 초등생 성폭행

## 광주동부경찰 20대 구속 ... CCTV 무용지물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박모(28)씨가 29일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난 6월 서울에서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경찰과 교육청 등이 학교에 대한 순찰 등을 강화한 가운데 또 다시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광주동부경찰은 29일 지적장애인만을 골라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카센터 직원 박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모 초등학교 본관 현관문 앞에서 이 학교 5학년 A(12·지적장애 2급)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이달 중순 오전 6시께 광주시 동구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B(28·지적장애 3급)씨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휴일인 이날 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A양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본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학교 본관 주변에는 모두 3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위치가 고장돼 있어 범행 현장을 비추지 못했다. 또 A양의 비명소리를 들은 학교 경비원(77)이 순찰을 나왔지만 박씨는 이미 달아나 뒤였다.

이와 관련, 어린이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경비 인력 및 시설을 대폭 강화하거나 휴일이나 방과 시간 이후에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시민 김모(45·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10억대 거머리말 불법채취 일본에 몰래 판매 6명 검거

### 완도해양경찰

완도해양경찰은 29일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생물을 불법 채취해 일본에 밀반출한 윤모(43·완도군 군의면)씨 등 어민 3명과 수출업자 등 6명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7년 초부터 최근까지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인근 해안에서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10억원 상당의 거머리말을 불법 채취한 뒤 일본의 한 수족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이 밀수출한 거머리말은 일종의 한 수족관에서 키우고 있는 멸종 위기 바다동물인 ‘듀공’의 먹이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듀공이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로 알려진 거머리말은 길이 50~100cm, 너비 3~5mm의 수산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완도·제주도·강원도·경상남도 인근 해안에 서식하고 있으며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이 감소해 지난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됐다.

특히 거머리말은 파도의 강도를 조절하고 바닷물의 침전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어린 물고기나 조개의 사식지 역할도 한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여자문제 말다툼 동거남 흥기살해

#### 북부경찰 40대女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여자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남을 흥기로 찔러 숨지게 한 홍모(여·42)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풍암동 동거남 송모(48)씨의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송씨를 흥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 27일 동거남과 여자 문제로 다투고 가출한 뒤 다음날 귀가했으나 작은방에 송씨의 여자 후배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송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흥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싸움판 구경하다 순찰차 발로 차



○...술에 취해 남의 싸움을 구경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찬 20대가 경찰서행.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권모(27)씨는 지난 28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송촌동 한 음식점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한 화정파출소 경찰관이 타고온 순찰차 운전석 문을 발로 5차례 차 찌고르려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이날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음식점 앞에서 벌어진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찰차 무전기를 잡아 흔드는 등 소동.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